

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 새 생명 '귀감'

공군 1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송민준 일병

작년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 후 입대
울 초 "항원 일치" 연락...염증수치 ↑
운동 등 몸 관리 통해 최근 전달 마쳐
"생명 나눔의 기쁨 많은 사람 누렸으면"

현역 공군 장병이 입대 전부터 품어온 생명 나눔 가치 실현의 꿈을 자기 관리를 통해 실현해 귀감이 되고 있다.

23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운항관제대 소속 송민준 일병은 최근 생면부지의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 새 생명을 선물했다.

송 일병이 기증을 마음먹게 된 계기는 어릴 적 겪은 아픔이다. 과거 친조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운항관제대 장병들이 최근 이뤄진 송민준 일병(앞줄 가운데)의 조혈모세포 기증을 축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다 입대 전 우연히 접한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물을 계기로 그는 지난해 6월 실제 서약을 맺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환자와 기증자 간 조직 적합 항원 (HLA : Human Leukocyte Antigen) 이 일치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가족 간에도 항원 일치 확률이 5%에 불과해 실제 기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송 일병은 기증 서약 반년여 만인 올해 1월 적합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기증 전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검진 당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기증이 무산될 우려도 있었지만, 송 일병은 이를 극복하고자 운동을 통한 몸 관리에 나섰다.

몇 주간의 노력 후 이어진 2차 검진에서 송 일병은 마침내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지난 13일 조혈모세포 기증을 마쳤다.

기증 전까지 송 일병은 여러 차례 촉진제를 투여받아 심신이 고단한 상황이었지만, 어떠한 근무도 열외하지 않고 군인으로서 맡은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했다.

송민준 일병은 "기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신 주임원사님과 생명 나눔의 귀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응원해준 선임 덕분에 무사히 기증을 마칠 수 있었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일을 하게 돼 기쁘고, 제 일화를 동지들이 생면부지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상 기자



(주)금화, 무안 저소득 아동 지원 성금 기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남 사랑의 열매)는 23일 "(주)금화가 무안 저소득 아동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전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무안 지역 저소득 아동의 간병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무안에 소재한 축산업 기반 양계 기업(주)금화는 2015년부터 무안 지역 저소득 아동 가정을 위해 꾸준한 나눔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고 있다.

이상배 (주)금화 대표는 "지역사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유장석 MC, 초록우산에 기부 후원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유장석 MC가 인재양성 아동들의 꿈 도전을 응원하며 130만원 상당의 기부를 후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장석 MC는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대학 축제, 지역 행사, 기업·단체 체육대회 등에서 행사 기획과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맡는 전문 사회자다.

그는 2019년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뒤 취약계층 아동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써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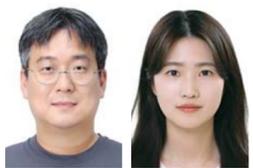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유 MC의 기부 후원은 주변 사람들과 식사를 하며 정을 나누는 '장석회관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할만 모금했다.

유장석 MC는 "매번 새학을 맞아 다양한 인재양성 아동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듣고 직접 응원할 수 있어 큰 기쁨"이라며 "혼자였다면 5년 동안 꾸준히 기부를 선물하는 일이 불가능했을 텐데 매년 주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GIST, 파킨슨병 늦추는 새 치료 전략 개발

오창명 의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

뇌세포 속 세라미드 생성 억제
운동 능력·기억력 개선 등 확인



오창명 이은경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연구진이 뇌세포 내 특정 지방 성분의 생성을 억제해 파킨슨병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전략 가능성을 제시했다.

23일 GIST에 따르면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 연구팀은 지방처럼 작용하는 대사물질 '세라미드(ceramide)'의 축적이 단백질 응집과 신경세포 손상을 유도하는 핵심 원인임을 확인하고 이를 억제해 파킨슨병 병리 진행을 완화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파킨슨병은 손발 떨림과 보행 장애 등 운동 기능을 서서히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전 세계 약 1천만명이 앓고 있다. 현재 치료는 증상 완화 중심으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뚜렷한 치료법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연구팀은 루이소체 치매(LBD) 환자 6명의 뇌 조직과 정상 뇌 조직을 비교 분석한 결과 환자 뇌에서는 19종의 세라미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세라미드를 생성하는 효소 관련 유전자(CERS5·

CERS6)의 활동이 높아진 것도 확인했다.

이러 파킨슨병 동물 모델에 세라미드 생성을 억제하는 물질인 '마이리신(myriocin)'을 5-7개월 투여한 결과,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 응집이 감소하고 운동 능력과 기억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도파민 신경세포 손상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오창명 교수는 "임상 적용을 위해 보다 안전한 합성 억제제 개발과 장기 독성 검증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가 지도하고 이은경 박사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가보건기술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았다. /박선욱 기자



영광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영광경찰서는 "최근 청사내 회의실에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고도화된 보이스 피싱 수법과 소상공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노쇼' 범죄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신고 체계와 주민 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교통 안전 분야에서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과 보복운전 발생 시 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지역 내 회전교차로 이용 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현장 지도 강화와 보복

운전 근절을 위한 단호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

최성규 협의회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경찰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도 범죄 예방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신 영광경찰서장은 "위원들께서 전해준 현장의 목소리는 안전한 영광을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된다"며 "보이스피싱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상습 주취차 관리 등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치안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전남도, 결핵예방의 날 맞아 목포역서 캠페인

전남도는 23일 목포역에서 '제16회 결핵예방의 날(3월24일)'을 맞아 결핵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전남도와 목포시,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참여해 도민과 목포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홍보 엑스선 촬영 등 무료검진을 했다.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와 유관기관에서는 결핵 예방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누리집, 언론매체, SNS 등을 통해 결핵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검진과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

이다.

전남도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핵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로당 어르신 전수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등 현장 중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조기검진 확대와 예방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만석 감염병관리과장은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체중이 줄어드는 등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정기적 결핵 검진을 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담양군-지역 의료기관 '통합돌봄' 협약

담양군은 "최근 군청 면양정실에서 관내 2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 의료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자의 재입원을 방지하고,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는 담양사랑병원과 나눔내과외원이 참여했다. 병원에서는 퇴원 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군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군은 퇴원 환자를 위한 원스톱 통합돌봄 연계 시스템을 운영해 환자의 필요도에 따라 가사·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 서비스부터 문턱 제거,



담양군 통합돌봄 연계 의료기관 업무협약식

난간대 설치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협력해 단절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진도경찰 '2026 치안종합성과 보고회'

진도경찰서는 23일 경찰서 보배마루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각 과장, 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치안종합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기능별 성과지표 달성을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치안고객만족도와 체감안전도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치안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황동석 경찰서장은 "기능별 성과지표는 경찰



2026년 치안종합성과 향상 보고회

활동 전반의 방향성과 수준을 가능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모든 기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박재권 기자



여수경찰 '짜이카·암행팀' 집중 단속

여수경찰서는 23일 "봄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3일까지 2주간 고강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경찰은 짜이카와 암행순찰팀, 기동대를 주요 교차로와 대로변에 배치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와 교통안전 수칙 홍보를 병행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가시적인 활동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여수=김진선 기자

결혼

▲이중주(전남매일 주필)·이지영씨 아들 준영군, 양상원·김점숙씨 딸 현경양=23일(일) 오후 3시 토브헤드(서울 강남구 논현동 72-8).

부음

▲김건홍씨 별세, 김순희(광주 남구 아동청소년과장)씨 부친상=발인 25일(수) 오전 7시 30분 광주 천지장제사장 201호 (062-527-1000).